

아시아 Kaftan樣式에 관한 研究

충남대학교 가정대학
교수 오 춘 자

目 次	
I. 序 論	VI. 宗教東漸에 있어서 Kaftan의 影響
II. Kaftan 出現의 歷史와 文化的 背景	VII. Kaftan樣式의 時代的 分流
III. Kaftan과 아시아 遊牧民族의 服飾	VIII. 結 論
IV. Kaftan의 東西交流와 分布	참고문헌
V. 貨物을 통해서 본 Kaftan의 分布	ABSTRACT

I. 序 論

人類文明의 歷史가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開花함과 동시에, 人間 服飾의 歷史도 아시아에서 發源했다고 볼 수 있다. 服飾은 氣候, 風土 등 自然的 環境과 政治, 經濟 등 社會組織과 藝術樣式, 思想, 哲學, 宗教 등의 精神文化的인 環境과 直接的인 關係를 가진 그 시대의 生活 樣式의 한 표현이며, 着用者의 人間 意志와 感情을 표현하는 生活文化的 重要한 要素이다.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古代 遊牧騎馬民族의 服飾인 kaftan(카프탄)이다. 이 服飾은 歷史的으로 古代 遊牧騎馬民族에서 發源하여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시아 地域 전체에 전파되어 범아시아적인 服飾形으로 定着되었던 것으로, 현재에도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착용되고 있다.

그 당시 kaftan뿐만 아니라 文化와 文明의 相互 交流의 主要 媒介는 실크로드 주변의 遊牧民族과 그들에 의해 호위된 交易商人에 의해서 이루어졌

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른 민족들은 kaftan 특유의 기본 형식은 유지하면서도 자신들의 生活環境과 需要에 적응시켜 조금씩 여러 가지 樣式의 變化를 가해 왔다. 오늘날까지 그 名稱조차도 아랍과 일부 터키에서만 原名을 그대로 사용할 뿐이고, 각 지역과 나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원형의 변화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¹⁾

'kaftan'이라는 단어는 語源에서 보면 터키語로 gaftan, 아랍語로 cuftan, 페르시아語로 khaftan, 프랑스語로 cafetan, caftan, 英語로 kaftan, caftan, caffetan, cafetan, coftan은 단어의 형태와 발음에서의 類似性이 있는 반면 각 나라마다 명칭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터키는 kaftan(카프탄), khil'at(킬라트), entari(엔타리), 페르시아는 diubbe(듀베), djubba(जू바), 팔레스타인에서는 gumb z(갑바), aba(압바), djubba(जू바), 중앙아시아에서는 чопан(차퐁), мурсак(무르샤크), ХалаТ(하라트), ичмек(잇찌멕), дун(돈), дон(동), гилим(기리몽), чапан(차판), 몽골에서는

1) 고복남, 「韓國衣服의 類型과 樣式」, 集文堂 : 서울, 1987, pp.155~156

debel(데벨), 인도에서는 웅가르카, 중국에서는 袍, 한국은 두루마기, 일본은 기모노 등으로 부른다. 單語의 形態 및 發音의 類似性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kaftan은 유라시아 전 대륙에 걸쳐 광범위하게 착용되었던 복식이였다. 그러함에도 名稱이 相異했던 것은 각기 다른 時代와 民族, 言語, 地域 및 風土 등에 따라 전과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차이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차이, 즉 재질, 신분계층, 생활풍습, 종교 등 문화적인 조건과 함께 양식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였다.

통이 좁은 소매에 앞이 트인 것을 띠로 여며 착용하거나 또는 여미지 않고 착용하는 복식형태의 通稱인 카프탄은 대부분 바지와 함께 착용한다. 각 지역에서 착용하고 있는 kaftan의 공통요소를 보면 앞트임(前開), 직선재단, 썸(襠)과 무(褶)가 있으며, 여밈(左襟, 右襟, 合襟, 曲領, 團領)이 있어 띠나 끈, 단추 등으로 고정시키며, 옷의 길이는 둔부선, 무릎선, 발목선, 허리선, 땅에 끌릴 정도의 다양한 길이가 있다. 그리고 겹쳐 입을 수도 있으며, 홑겹, 겹, 숨을 넣어 누빈 것, 털을 단 것 등의 종류와 年代, 種族, 性別, 社會的 地位에 따라 kaftan의 형이 다르고 명칭도 다양하다. 재료로는 펠트, 모직물, 견직물, 면직물, 면과 견의 교직물과 근대에 와서는 화학섬유로 된 것이 있다.

이에 本考에서는 아시아 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kaftan양식의 변천과, 고대로부터 종교는 복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kaftan양식에 미친 종교의 영향을 연구하고, kaftan의 出現背景을 아시아 遊牧騎馬民族의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과 연관지어 考察한 다음, 실�크로드를 통해 東西交流를 고찰하고자 한다.

研究範圍로는 첫째, kaftan은 아시아 복식이라 한 것과 같이 쏘아시아 즉,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를 포함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의 kaftan(袍)에 대한 고복남의 선행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研究對象의 地域的 範圍를 遊牧騎馬民族인 스키타이의 影響을 받은 서아시아와 들길, 흉노의 영향을 받은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몽골로 한정한다. 둘째, 時間的 範圍는 본 研究의 制限點이 되기도 하는데, 地域別로 kaftan에 관한 文獻과 資料가 확인되는 最古의 時點인 기원전 4세기부터 kaftan을 着用하는 최근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잡았다. 즉 古墳에서 kaftan 遺物이 發掘된 기원전 4세기경으로부터 壁畫의 시기인 5~7세기와 中世 페르시아의 細密畫가 나온 14세기 17세기, 近代의 각국 博物館에 kaftan이 所藏된 19세기 20세기를 考察 對象으로 하였다.

研究 方法은 kaftan과 kaftan을 着用한 곳으로 간주되는 地域을 대상으로 한 횡적인 연구와 시대적으로 나타난 유형을 대상으로 한 종적인 변천사적 고찰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또한 文化 人類史的인 면에서 여러 종교에 나타난 服飾의 接觸 가능성을 이 논문에서 시도했음을 밝힌다.

研究資料는 地域성과 언어적 장벽 때문에 영어, 불어, 일어로 출판된 참고서적을 한국어 참고서와 더불어 研究 資料로 이용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러시아어, 히브리어, 터키어 등으로 기술된 참고서들은 구미 학자의 研究畵에서 다루어진 바, 사진 자료 및 그림들과 더불어 재인용되는 制限點이 있다. 따라서 資料가 부족한 지역과 시대적 공백에 대해서는 부득이 체계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는 制限點이 있다.

II. Kaftan 出現의 歷史와 文化的 背景

“人類의 文明은 오리엔트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²⁾ 그 이유는 세계 4대 文明中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2) 井上泰男의 2인, 「東西의 服裝史(古代編)」, 衣生活研究會:東京, 1987, p.365.

문명, 황하 문명 등 3개 문명이 아시아 대륙에서 개화하였고, 유대교, 그리스도교,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마니교, 경교, 이슬람교, 불교, 도교 등全世界的 宗教가 아시아에서 誕生 發展하였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60%가 밀집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은 地理的으로는 물론 歷史的으로도 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이 多元的이고 複雜하므로, 地形, 氣候, 風土, 生産 條件 등도 다양하고 문화의 발전 단계도 지역에 따라 매우 相異하다.

기원전 8세기경 두 개의 遊牧民族帝國이 스텝 지대를 지배하고 있었다. 서쪽에는 스키타이제국이었고 동쪽에는 흉노제국이였다. 이 두 제국이 지배하던 당시의 스텝지대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나 문헌과 유물은 남아 있다. 스키타이와 흉노 두 제국이 멸망한 후에는 돌궐제국이 등장하여 스텝지대를 지배하였다. 돌궐제국의 전성시대에는 그 支配權이 중국의 만리장성으로부터 카스피해에 이르렀고 중국과 비잔틴 문명 세계에도 상당한 影響을 끼쳤다.³⁾ 이 시대에 서쪽 스텝지대는 交易上 絶대로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⁴⁾ 그러나 교역의 상대였던 정착민족들, 특히 중국과 교역문제로 수없이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그 후 자체 내부의 분열로 돌궐은 멸망하였다.

그 후 돌궐계 부족이 재기하기 위해 일어났으나, 전과 같이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지는 못하였다. 스텝지역 즉, 중앙아시아에서는 위구르제국이 서아시아지역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제국이 11세기초에 건설되었고, 그 후 12세기말에 몽골제국이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III. Kaftan과 아시아 遊牧民族의 服飾

복식은 자연환경, 사회구조, 문화조건 등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그 시대 생활양식을 표현한다.

kaftan은 고대 아시아 유목 기마민족 복식의 기본 패턴이며, 시대에 따라 발전 변형되어 오늘날까지 전파되어 왔다고 여겨지므로 고대 아시아 유목민족의 kaftan들을 유물과 벽화를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kaftan(kaφTaH)’이라고 하는 上衣를 소련령에 속했던 중앙아시아에서는 주로 ‘harat(하라트, ХараТ)’라고 한다. 우샤코프의 러시아語 辭典에 의하면 kaftan은 페르시아語에서 ‘옷 길이가 긴 겉옷’이란데서 유래하였고, harat는 아랍語에서 ‘옷 길이가 길고 폭이 넓은 겉옷’이라 기록되었다.

Kaftan은 織物業이 發達한 아나톨리아(소아시아, 현재 터키)의 한 地方 이름이었으나 中世 初부터 터키를 포함한 서아시아 일원에서 着用되어 온 傳統 衣服을 通稱하게 되었다.⁵⁾

몽골 服飾 연구가들은 몽골 의복 전체를 kaftan 型의 典型으로 보고 있다.⁶⁾

中國에서는 西域의 衣服을 胡服이라고 하는데, “胡人”이란 고대 중국인이 사용한 塞外人의 汎稱이다. 「史記」, 「漢書」 등에서 볼 수 있는 胡人은 오로지 북방의 匈奴를 가리켜 사용되고 있었지만, 魏晉 이후 西域 諸國人을 가리키게 되었고, 隋唐時代가 되면 突厥, 回紇 등 北狄은 물론 吐蕃분지, 서아시아의 소그드, 페르시아의 西域人도 모두 胡人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唐代에는 특히 이란인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⁷⁾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服飾 學者들이 kaftan의 發生地인 터키 地域뿐 아니라 몽골을 위시한

3) 룩관텐, 宋基中(譯),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서울, 193, p.21.

4) 위의 책, p.22.

5) 무함마드 칸수, “韓國服飾과 西域服飾間의 共通要素,” 韓國服飾, 제11호,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서울, 1993, pp.1~26.

6) H. H. Hansen, 「Mongol Costumes」, Nordisk Forlag, Kφbenhavn, 1950, p.12.

7) 平凡社, 「アジア歴史事典」, Vol. 3, 平凡社: 東京, 1982, p.388.

아시아의 여러 나라 衣服을 kaftan이라고 命名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본다. 東·西洋을 막론하고 學者들은 아시아 地域의 대표적인 衣服을 kaftan으로 명명하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고 있는 것으로 把握된다. 아시아의 衣服 樣式이라 할 수 있다.

1. 스키타이의 kaftan

기원전 8세기경 遊牧騎馬民族인 스키타이인들은 토양이 비옥하고 비교적 온난한 氣候에 드니에 프르강과 드네로스강을 끼고 있는 흑해 북안 일대에 定住하기 시작하였다.

스키타이에 관계된 出土品の 대부분은 현재 레닌그라드의 에르미타주 博物館(Hermitage Museum)에 所藏되어 있지만,⁸⁾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지방 博物館에도 出土品이 일부 所藏되어 있다.

여러 遺品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돈강 상류의 보로네즈에서 出土된 기원전 4세기의 銀製壺이다(圖 1). 여기에 스키타이인들이 彫刻되어 있는데, 그 服飾은 모두가 같은 形態이다.



(圖 1) 보로네즈에서 출토된 銀製壺
(스키타이 文化의 기원과 전파, p.9)

2. 흉노의 kaftan

흉노는 기원전 3세기말부터 기원 후 1세기경까지 몽골고원 만리장성 일대를 중심으로 활약한 遊牧騎馬民族 및 國家의 名稱이다. 흉노족은 몽골 초원지를 중심으로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서방 유목민족인 스키타이의 영향을 받아 호전적인 기마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東西文物의 交通路가 된 실크로드는 흉노의 서역지배로 말미암아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는데, 흉노민족의 유적으로는 1924년 발견된 노인우라(Noin-Ula)古墳과 1929년 발굴된 파지릭(Pazyrik)古墳을 들 수 있다. 유물의 유물을 통해서 흉노의 kaftan은 유목민족의 기본복인 통쭈름은 소매에 둔부선길이의 합임과 변령의 여밈형태로 띠로 매어 여며입었고, 꼭맞는 바지에 장화를 신었다. 재료는 絹, felt로 만들었고, 출토된 카펫 중에는 色色의 絹絲로 수를 놓아 도안이 정교하고 색채가 화려한 훌륭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이 많다. 또한 펠트 위에 다양한 색상의 털실을 사용해 아플리케 기법으로 장식한 수예품은 흉노의 특색적인 예술품으로 평가받고 있다.⁹⁾

3. 돌궐의 kaftan

돌궐족의 起源은 中國의 史書들에 의하면 ‘돌궐은 흉노의 일파’라고 기록되어 있다.¹⁰⁾ 돌궐은 6세기초 알타이 산맥 동부 평원을 중심으로 인근의 광산지대인 애로칸트, 카슈가르, 쿠차 등지에서 전통적인 철공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돌궐제국 창건자 부민(Burnin, 土尙, 535~552)은 突厥部族聯盟의 指導者로 부상하여 西魏와 同盟을 맺어 화친 정책을 쓰고, 546년에는 남방에 거

8) Nina Biriukova, 『Decorative Arts in the HERMITAGE』, Aurora : Leningrad, 1986, pp.85~107.

9)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서울, 1993, p.38.

10) 룩관텐, 앞의 책, p.57.

주하고 있던 흉노의 일파 정령(丁零, Toles)을 북속시키고, 552년 초 서위와 연합하여 연연을 멸망시킴으로써 스텝 지역의 지배자가 되었다.¹¹⁾

돌궐족의 주요한 服飾은 양모나 褐布로 된 kaftan이다(圖 2). 좌임에 대를 띠고 여러가지를 佩用하였다.



(圖 2) 돌궐 남 녀의 kaftan
(東洋服裝史論考 <中世編>, p.428)



(圖 3) 소그드 상인들
(服裝文化, 150호, p.28)

투르판인의 kaftan : 아스타나(Astana) 出土 그림으로, 北魏時代 高昌貴族을 묘사한 벽화이다. 귀족들은 廣袖의 長袍를 입고 있고, 시종드는 악사들과 부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服飾은 통이 좁은 소매의 짧은 kaftan과 바지를 입은 유목민족복식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쿠차인의 kaftan : 키질(kizil)千佛洞 벽화들에 쿠차인의 민족적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西方的이고 印度的인 표현이 강하게 구별되어 있다. 벽화에 나타난 인물 복장은 kaftan의 한쪽 칼라만 열려 있는데 이것을 여미면 團領이 되도록 한 것이 특징적이며 강렬한 색상으로 선을 둘러쌌다(圖 4).

발굴된 벽화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은 사마르칸트 벽화 중에 7세기 후반 경의 것으로 사마르칸트王 울프만(『新唐書』西域傳에 보이는 捨呼曼)의 宮廷에 토하리스탄(吐火羅)의 짜가니안國이나 西域의 高昌國, 혹은 中國에서의 사절단이나 新羅의 사절단까지 그려져 있다¹²⁾(圖 5)는 것이다. 또한, 西壁의 畫面에는 전부 42인의 인물이 그려져 있지만, 아리비움은 그 중에 30인은 國王 울프만의 從者이고, 12인은 각국에서 온 사절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¹³⁾ 7세기 후반경의 중앙아시아 服飾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의 하나이다.

IV. Kaftan의 東西交流와 分布<표 1>

1. Silk Road 주변의 Kaftan분포

위구르인의 kaftan : 투르판盆地의 베제클릭(Bezeklik) 寺院의 벽화에서 보이는 위구르 왕자의 초상에 나타난 왕의 복식은 金花冠을 쓰고, 의복은 중국 당대의 양식에 가까우나 옆의 트임이 있는 kaftan이 보인다.

소그드인의 kaftan : ‘이익이 있으면 어디든지 간다’는 소그드인들은 항상 여행자의 복장차림으로 둔부천까지 이르는 길이의 kaftan에 帶를 띠고 바지를 입었으며, 머리에는 소그드인 특유의 모자를 썼다(圖 3).

11) 위의 책, p.73.

12) 川. 孟. 阿. 加藤九祚(譯), 『古代サマルカンドの壁畫』, 文化出版局: 東京, 1980,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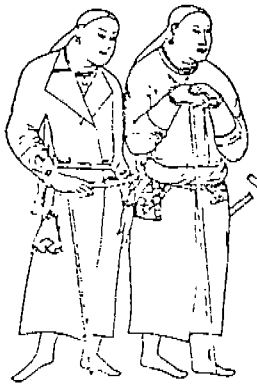
13) 위의 책, p.8.

<表 1> kaftan 유물·벽화 발굴지

발굴지역명	연 대	발굴 물	여 름	길 이	비 고
쿨오바 (Kul-Oba)	B.C. 4C	黄金鎧의 浮彫		둔부선	흑해북안, 그리스 반도북쪽
솔로카 (Solokha)	B.C. 4C	황금빛, 황금병, 도자기의 浮彫		둔부선	드니에프르강 하류, 흑해연안
브르네즈 (Voronez)	B.C. 4C	銀製壺의 浮彫		둔부선	돈강상류
가이마노바-모질라 (Gaimanova - Mogila)	B.C. 4C	銀製그릇의 浮彫		둔부선	
체로몰리크-바로우 (Chertomlyk - Barows)	B.C. 4C	銀製 amphora의 浮彫		둔부선	드니에프르강 하류
나크슈이투스탐 (Naqsh-l-Rustam)	B.C. 3C	안다실 1세 서임식 浮彫		무릎위길이	페르세폴리스
파지리크 (Pazyrik)	B.C. 2~3C	펠트 kaftan		둔부선과 긴 길이	알타이 산맥
쿠르간-튽 (Kurgan-Tyube)	B.C. IC	黄金人像		둔부선	두산베의 동남쪽의 호슈계곡
박트리아 (Bactria)	B.C. IC	服飾에 사용된 金板		둔부선	Titlya tepe 타지키스탄 남쪽 아프카니스탄 북쪽
노인우라 (Noin-Ula)	B.C. 3C~ A.D. IC	kaftan, 바지, 버선, 양털갈개, 馬具, 카페트		둔부선	오르혼강, 셀렝강, 몽고북쪽
마잔테	3C末	銀製접시의 浮彫		둔부선	
클리모보 (Kilmovo)	4C	銀製접시의 浮彫		무릎길이	
키질千佛洞 (Kizil)	4C	화가도, 공양자상		무릎위길이	큐차주변, 천산산맥 남쪽
쿠즈르가하千佛洞	4C	큐차무사상		무릎아래길이	천산산맥 남쪽 큐차시가에서 서북쪽
돈황	5C말~6C初	위구르 부인像		땅에 끌릴 정도의 길이	中國安西의 남쪽, 타클라마칸 동쪽
발라릭크테페 (Balaliktepe)	5C~6C	감로수 잔을 든 혼례장면 벽화			사마르칸드
사마르칸트 (Samarkand)	7C	울프만왕의 종자 를, 토하리스탄, 자 가니아누 사절 등 42인의 인물상		발목길이	파미르고원 서쪽
베제클리크 (Bezekliik)	7C~8C	위구르 국왕 초상, 공양자, 위구르 여왕		발목길이	투르탄 분지
아스타나 (Astana)	8C	고창귀족 묘사		둔부선	투르만(高昌), 서투르만분지



(圖 4) 쿠차인의 kaftan
(中央아시아 美術 p.152)



(圖 5) 사마르칸트의 壁畫중에서 울프만포의 종자들
(古代サマルカントの壁畫, p.67)

2.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의 細密畫에 나타난 kaftan

사산조 페르시아(226~651)는 동쪽의 옥수스강에서 부터 서쪽의 유프라테스강에 이르는 지역까지, 그 당시 서로마 세력권과 동쿠산 왕조의 세력권 사이에 위치하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페르시아만 연안의 해상항로를 지배하는 要所를 차지하고 있던 강대국이었다. 사산조 페르시아시대의 복식자료 중 몇 가지의 浮彫와 細密畫(Minia-

ture)는 그려진 시대는 각기 다르나 그 주제는 페르시아 당시의 서사시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시대를 거듭하면서 계속적으로 많은 화가들이 다루어 그려던 것이다.

사산 왕조 중 가장 위대하였던 호스로 1세(531~579)는 이 왕조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많은 치세의 예가 나온다. 즉 로마의 디오크레디아누스 황제는 사산조 황제의 복식을 모방하였고, 궁정의 의식에도 페르시아의 威儀를 받아들였다¹⁴⁾ 할 정도로 사산조 궁정의례는 로마 제정 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잔데란에서 출토되어 현재는 테헤란 국립 고고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은접시에는 호루무즈 왕자의 사자사냥도가 그려져 있다. 3세기 말 사산조 귀족의 복식이 어떠한 양식이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에서 왕자는 머리 위에 球形의 장식이 있는 독특한 보관을 썼고, 둔부선 길이의 교임 kaftan을 입었으며 한쪽에 주름이 있는 특수한 바지를 입고 있다. 뒤돌아보며 사냥물을 쏘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예술품은 전형적인 사산조의 정교한 그림이다.

3. 사라센 시대의 細密畫에 나타난 kaftan

사산조 페르시아가 패망한 다음 해인 643년경에 아랍의 기사들은 중앙아시아의 아무강이나 인도의 西境에까지 진출해 있었지만, 사라센제국 최초의 王朝 움마이야朝가 성립한 것은 661년으로 수도를 다마스쿠스로 정했다.

예언자 무함마드를 시발점으로 아라비아에서 발원하여 中近東 지역으로 세력을 떨친 이슬람은 단순한 믿음과 의식의 체계를 넘어서 국가, 사회, 율법, 사상 및 예술 등 생활전반을 지배하는 체계를 이룬다. 즉 종교가 모든 것을 집결시키는 核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이슬람 문명을 이룩한 것이다.

14) 杉正本年, 「東洋服裝史論考(中世編)」, 文化出版局: 東京, 1984, p.160.

이슬람教徒는 그 종교적 율법에 따라 인물이나 동물을 표현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피하였으므로, 동시대의 작품으로서 남겨진 복식자료는 극히 적다.

이슬람인 아랍왕국 움마이야朝의 성립은 시리아인의 협력에 힘입은 바 컸는데 압바스朝의 문화 전반에는 페르시아의 전통이 현저하게 계승되고 있다. 그 근거로 細密畫를 들 수 있다. 아밀 호스로브 델르비(Amir Hosrov Dehlevi)는 中世 페르시아語로 작품을 창작한 가장 위대한 詩人이었는데, 그의 시는 각 시대의 시간과 다양한 사람들을 문학적인 접촉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으며, 페르시아의 이야기들을 소재로 한 詩의 내용은 14~17세기까지 세밀화로 복사되어 읽혀졌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피르다우스(Firdausi, 934~1020) 작품의 유명한 왕서(王書, Shah-Name)에서 바하람(Bahram)王의 이야기와 Hosrov와 Shirin의 사랑이야기가 특히 유명하며, 이 세밀화를 통해서 사라센의 복식을 볼 수 있다(圖 6).



(圖 6) Miniature 63 "Shirin & Hosrov"
(Leningrad Salticov-schedrin)

V. 實物을 통해서 본 Kaftan의 分布

1. 서아시아의 터키, 팔레스타인의 kaftan

遊牧民族인 투르크족의 發展過程을 보면 흉노제국, 돌궐제국, 위구르제국, 불가르, 카라한, 가즈나조를 거쳐 셀주크 터키와 오스만 터키에 이르렀고 현재 터키 공화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過程을 통해서 볼 때 터키 服飾의 源流를 찾아 올라가면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에서 그 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¹⁵⁾

가장 初期의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이칼 호수 남부 알타이 지역의 Pazyryk에서 發掘된 服飾과 Noin-Ula에서 發掘된 kaftan, 특히 9세기 Bezeklik 사원 벽화에 위구르인들의 kaftan, 5~8세기경에 판지겐트, 사마르칸트 벽화와 소그디안 벽화에 나타나는 kaftan이 있고, 7세기 중엽 이후로는 점차 서쪽으로 오면서 페르시아적인 文化를 바탕으로 아랍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이 시기에는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 인물을 그리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복식의 자세한 모습을 알 수 없다.

Topkapi Saray宮¹⁶⁾ 博物館은 世界的으로 유명한 藝術品들의 集積장과 같다. 여러 가지 藝術品 중에서 놀랄 만한 것은 이 궁에서 製織한 직물들과 술탄의 kaftan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터키에서는 술탄이나 그의 가족, 또는 대신들이 죽으면 그의 kaftan과 소유물들을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하여 관습적으로 창고에 보관했었기 때문에 다량의 많은 kaftan들이 발굴된 것이다.¹⁷⁾(圖 7)

팔레스타인은 기원전 200년경에 古代 히브리민족이 정착한 지역으로, 히브리(Hebrew)민족의

15) Leiden E. J. Brill, 「Encyclopédie de l'Islam」, Tome. V : Brussels, 1986, p.756.

16) Topkapi Saray궁은 15세기 후반부터 1924년 터키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술탄들의 관저였다. 이곳에서 술탄들의 kaftan이 다량으로 발굴됨.

17) J. M. Rogers. Hülyeteczan, Selma Delibas, 「TOPKAPI」, Thams and Hudson : London, 1988, p.11.



(圖 7) 터어키의 kaftan
(Topkapi Saray Museum, p.51)

先祖는 半遊牧生活을 한 sem족의 일부이다.¹⁸⁾ 이 지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로마 그리고 페르시아 및 중앙 아시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통로였으며, 구약성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¹⁹⁾으로 수없이 정복당하고 정복하는 격전을 치렀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에서 히브리인(유다)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교의 때문에 사람과 살아있는 동물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다.

이 지역은 기원전 64년경에 로마제국이 정복하여 4세기에 이르러 비잔틴의 콘스탄틴大帝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얻었고, 팔레스타인의 크리스찬 종교 성지가 되었다.

기원후 632년에 아라비아반도에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아랍인들이 비잔틴제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을 정복하여 이슬람국가로 통합하게 되면서부터 서서히 아랍화·이슬람화되기 시작한다.²⁰⁾

팔레스타인의 복장은 언급한 대로 그림이나 유

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헬레니즘 이전 팔레스타인의 服飾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구약성서의 기록이다.

“만일 너희가 이웃에게서 겂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 겂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는가?”(출애굽 22:25~26, 신명기 24:12~13). “겂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벌거벗은’ 것으로 간주되었다.”(사무엘상 19:24, 이사야 20:2). “또한 벗었다는 것을 치욕적으로 생각하였다.”(창세기 3:7, 9:22, 이사야 20:4)

여기에서 겂옷이란 kaftan을 말하며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는 베두인(Beduin)의 abayah라는 외투(kaftan)를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abayah는 비가 올 때와 추울 때는 몸을 보호해 주고, 밤에는 담요 역할, 시장에서 물건을 넣어오는 자루 역할, 기도할 때는 깔고, 들에서 일할 때는 작은 천막 역할을 하는 아주 유용한 옷이다.²¹⁾(圖 8)



(圖 8) 팔레스타인의 abayah
(J. Rajar, Palestinian Costume, p.92)

18) 공동번역, 「성서」, 대한성서공회 : 서울, 1988, (창세기 10 : 21~31).

19) 성서 속의 가나안은 ‘약속의 땅’, ‘낙원’이라는 뜻으로 표현되었다. 팔레스타인은 현재의 이스라엘이다.

20) Yedida. K. stillman, 「Palestinian Costume and Jewelry」, Albuquerque, 1979, p.1.

21) Shelagh Weir, 「Palestinian Costume」, British Museum : London, 1989, p.48.

2. 중앙아시아 kaftan

중앙아시아는 카자흐(Kazakhs), 키르기스(Kirghiz), 카라칼파크(Kara-kalpaks), 타지크(Tadjiks), 투르크멘(Turkmens), 그리고 우즈베크(Uzbeks) 등 여섯 종족 집단이 각각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 國家들중에 타지크만 이란語를 쓰고 다른 종족들은 다양한 투르크어를 사용한다. 이들 國家들은 자연환경이나 경제상태, 물질문화, 정신적인 思考方式이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 오늘날 이 지역 사람들의 傳統服飾만 보아도 많은 共通點이 있는데, 기본형태인 遊牧騎馬民族의 服飾形態인 kaftan과 바지, 靴를 착용한다(圖 9).



(圖 9) 1890년대의 Buchara kaftan
(Art des Steppes et des Oasis, p.22)

3. 동북아시아 몽골 kaftan

몽골제국은 징기스칸의 영도하에 西로는 러시아의 평야지대로부터 東으로는 中國의 해안까지, 北으로는 북극에 접하는 시베리아의 끝으로부터 南으로는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을 점령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광활하고, 또 비교적 장기간 治世할 수 있었던 帝國을 건설하였다.

그 후 14세기에 이르면 몽골제국은 분열하고, 마지막 몽골제국을 이어가던 金호로드를 끝으로 제국의 종말(1502년)을 선포하였다. 몽골족은 淸朝를 이룬 만주족의 황제 누루하치를 1607년 자신들의 '카간'으로 수락한 후, 1691년 사이에 몽골민족 全部族이 완전히 臣服을 맹세하게 되었다. 이후 300여년 정도의 긴 세월을 그 속국으로 통치를 받았으므로 그들의 복식문화도 자연히 淸朝化하였으리라 생각한다.

몽골복식은 흉노에서 시작하여 遼, 金, 元으로 이어져 내려온 東北方 異民族 征服王朝의 服制가 漢族服制 관습과 혼용되었고, 복합적인 創制 變形으로 이어진 服制가 다시 女眞, 後金, 漢, 南北朝, 隋, 唐, 宋, 明으로 이어져, 變容 發展 創制되어 淸朝의 服制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몽골복식이라 함은 中國의 淸朝 服飾制度와 거의 같은 것으로 본다.²²⁾(圖 10)



(圖 10) Mongol Kaftan
(Women in Islam, p.150)

VI. Kaftan의 影響과 樣式

유목민족의 諸宗教는 문화 사회적인 환경보다는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의 결과로써 출현했다고

22) 임명미, 蒙古服飾, 경춘사 : 서울, 1992, p.742.

생각한다.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諸民族들과 같이 종교도 자연에 대한 경의심으로 초기에는 자연 발생적이었고 多神의이었는데, 이러한 자연 발생적이고 多神의인 신앙 중에서 조상숭배인 매장 의식으로 인해 후세에 와서 많은 부장품들이 발굴되었고 그에 따라 古代 유목민족들의 kaftan의 형태와 직물 등을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마니교는 3세기초에 이란의 마니(Mani lat Manes C, A.D. 216~276)가 고대 바빌론의 종교와 조로아스터교, 크리스트교, 불교의 교의를 따서 창시한 종교로, 상당한 부피의 경전 원본이 투르크스탄의 투르판과 이집트의 Fayoum에서 발굴되었다. 마니교는 한때 동 서양 전역에 널리 전파되어 거의 1000년 동안 활발하게 세력을 떨쳤다. 특히 이 종교는 위구르족 사이에서 널리 퍼져나감으로써 위구르 왕국의 문화적인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마니교는 콘스탄티노플과 로마의 교황에 의해 이단교로 지적되어 큰 박해를 받았다. 위구르족이 西遷한 후에도 불교와 함께 마니교를 신봉했다는 사실은 투르판 부근의 마니교 사원터에서 출토된 마니교 단편 등으로 보아 분명하다. 그리고 敦煌의 莫高窟, 쿠차의 쿰트라 石窟寺院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石窟寺院의 하나로 여겨지는 베제크릭 千佛洞에는 마니교 寺院으로서 이용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白衣 白冠의 徒로 불리는 마니교의 복식에 대해 「摩尼光佛敎法儀略」에 “串以素裳, 其居白座(흰 치마를 입고 흰 자리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마니교가 얼마나 흰색을 숭상했는지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崇白은 마니교도의 커다란 특징이었는데, 신도 복식에는 규정이 있었다. 상위 4등급은 흰 관과 흰 옷을 입는다. 宋代 문헌에서 당시의 ‘마니교도는 흰 옷을 입었다’고 기재하고 “白

衣道”, “白衣佈”라고 칭했다. 아라비아의 압바스 왕조 시대의 아라비아 마니교도들 역시 모두 테 없는 흰색모자로 표시를 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나 아랍이나 마니교도는 흰색을 숭상했다.²³⁾ 그러나 흰색은 단지 고창 마니교 벽화에서 약간 찾아낼 수 있을 뿐이다. 고창에서 발굴된 다량의 예술품들이 베를린 예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尉菁葆는 이를 바탕으로 「西域摩尼敎文明」을 저술하였다. 그의 작업을 토대로 마니와 마니교도들의 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⁴⁾

“마니교의 복식은 마니복과 선민복, 공양자복으로 구별된다.



(圖 11) 摩尼敎의 經書와 寫僧圖

(임 오수, 摩尼敎及基東漸, p.49)

(圖 11)은 투르판에서 出土된 마니교의 經書와 寫僧圖로 西域 마니교도들의 白衣白冠으로, 원통형의 높은 冠을 끈으로 턱밑에 매어 고정시키고, 늘어뜨린 띠도 없이 나란히 앉아 經書를 베끼고 있는 摩尼僧들의 kaftan은 흰색에 깃이 높고 몸에 꼭 맞으며 소매도 좁다. 그 길이는 앉아있는 모습이므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높은 모자와 높

23) 민병훈, “中央아시아—宗教傳播의 諸樣相”, 韓國服飾, 제12호.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 서울, 1994. 5, p.29.

24) 周菁葆, 「西域摩尼敎文明」, 新疆文物 1, 第二十四期, 1992, pp.69~88.

은 깃의 양식은 짧은 길이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긴 길이의 kaftan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니교의 복식은 비단 고장에서만 유행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도 사용되었다. 五天竺國傳에 아랍 동편은 甘肅城 외곽지역인데, 安國, 曹國, 史國, 朱國, 石國, 康國 등은 겹옷의 kaftan을 입었다고 한다.²⁵⁾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네스토리우스(Nestorius, 428~431)는 예수 그리스도는 神性과 人性의 僞格的 결합(hypostatic union)이 아니라 외형적 결합(synapheia)이라 하여 그리스도에는 두 인격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²⁶⁾ 431년에 에페소 공의회 때 이교집단으로 단죄되었고, 그는 流刑에 처해졌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크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489년 동로마 제노황제(Zeno, A.D 474~491)는 경교를 강력히 탄압하고 많은 신도들을 동방으로 추방하였다.

경교도의 다수는 사산조 페르시아로 도망하여 점차 동방 전도의 여행길에 올랐다. 그리하여 경교는 아라비아, 시리아, 팔레스티나 등지에 급속히 전파되었고, 마호메드도 네스토리아 수도자 밑에서 크리스티교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투르판 부근 경교 사원지에서 발견된 「승려의 일요일」의 벽화에서는 사제가 로마 크리스티교에서 유래된 종교의식으로 로마풍의 전례복을 입었다. 현재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로마시대에 입던 전례복을 입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신자들이 이란식의 kaftan을 입고 있는 것은 이 종교가 사산조에서 번영하여 퍼져 나가기 때문에 단령의 kaftan위에 변령의 kaftan을 입거나 걸친 이란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슬람교는 메카에서 무함마드(570~632)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슬람에서는 유대교나 기독교와 같이 유일신교에 속하면서 예언자의 출현

순위를 아담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예수를 거쳐 무함마드에 이른다고 한다.

이슬람문화는 그 특징이 시간상으로는 ‘古’와 ‘今’을 연결하고 공간상으로는 ‘東’과 ‘西’를 잇는 仲介的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무슬림들은 7세기경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및 로마제국의 領域을 占有하여 그 문화를 계승 발전시켰으며, 또 인도와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독창적인 이슬람 문화를 탄생시켰다. 이 발전된 이슬람문화는 당시 이슬람의 영역인 스페인과 시실리섬으로 전파되어 그 곳으로부터 서구세계로 들어갔다. 이것이 곧 서구 문예부흥의 잠재적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 복식문화도 다양한 요소들을 융화시켜, 지역적 종교적 특성에 따라 몸전체를 덮고 수건을 쓰는 아랍적이고 이슬람적인 형태였다. 그렇지만 유목민의 기본 복식에서 이슬람이라고 크게 변화된 것은 많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친 많은 지역이 거의 이슬람국으로 이슬람교가 kaftan에 새로운 영향을 미쳤다가 보다는 古代로부터 kaftan을 착용해온 국가들에게 전파되자, 기존의 kaftan과 veil을 이슬람에 적용시킨 것이다. 즉 kaftan은 이슬람의 율법과 생활지침 등에 잘 어울리는 服飾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종교의 東漸과정에서 보이는 복식문화는 각종 종교 및 문화의 발생 전파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민족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變容 受容되어 展開되었던 것이다.

VII. Kaftan樣式의 時代的 分類

1. half coat型 kaftan

古代 아시아, 특히 스텝지역에서 생활하는 遊牧 騎馬民族은 寒冷한 氣候에 대처하고, 말을 타고

25) 위의 책, p.82.

26) E. Royston Pike, 「Dictionnaire des Religion」, 1954, P.U. F : Paris, p.228.

활동하기 위해 遊牧騎馬民族의 특징적인 服飾을 착용하였다. 즉 그들의 기본복식은 소매통이 좁고 上衣로는 둔부선까지 이르는 kaftan과 下衣로는 바지에 장화를 신는 것이었다.

年代가 上古일수록 이와 같은 類型이 많이 나타난다. 특히 유물을 통해서 보면, 서쪽 스텝지역에서 활약하던 스키타이 유목민족의 생활 및 문화는 돈강 상류의 보르네즈에서 출토된 銀製壺(B.C 4세기)와 흑해 크리미아 반도 북쪽의 쿨-오바(Kul-Oba)에서 출토된 金製壺(B.C 4세기), 솔로카 바로(Solokha Barrow)출토의 金製 빗(4세기 초), 쿠르간-츄(Kurgan-Tyube)출토의 黃金 인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극히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 스키타이인들의 복식은 모두 둔부선 길이의 kaftan과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kaftan은 西域의 쿠차 주변 石窟中에 키질 千佛洞(Kizil, 5세기경) 석굴벽화의 供養者像과 畫家圖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길이가 짧은 half coat形 kaftan은 遊牧民族들이 말을 타고 활동하기에 편리한 基本服飾이라 할 수 있다.

2. long coat形 kaftan

Silk Road가 발달하고 交易이 활발해지면서 상권과 권력 장악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길을 따라 나타난 많은 부족국가들의 흥망성쇠 과정에서 遊牧民들은 점차 定居하여 政治經濟的 構造에 변화가 있으며, 社會階級에도 변화가 발생한 것은 자명한 현상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물의 다양성 역시 주목할 만 하며, 그 중 silk의 유입과 주요 상품으로의 부상은 kaftan과 무관하지 않다.

Silk Road주변의 壁畫와 細密畫를 통해서 보면, kaftan의 材料와 形態에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kaftan의 재질이 모직뿐만 아니라 silk로도 가능해지면서, 이를 착용하는 社會階級이 遊牧民이나 隊商뿐 아니라 권력자나 상류층에까지 확

대되어 kaftan이 신분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데까지 이용되었다. 또한 형태에서 소매통과 품이 풍성하게 넓어지고 길이가 훨씬 길어져 과거의 둔부선에서 발목선까지 내려왔다. 특히 술탄들이 입었던 kaftan은 권위와 위엄의 상징으로써 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圖 12)



(圖 12) Long coat形 kaftan
(Topkapi Saray Museum, p.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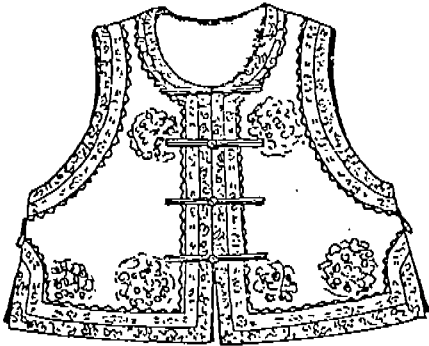
3. Jacket形 kaftan

19세기~20세기에 들어서 급속한 산업발전과 빠른 교통 통신의 발달 및 국가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급격한 文化交流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복식에 있어서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자켓형의 짧은 kaftan은 터키의 Abd 'l-Mecid (1839-1861)의 자켓으로, 세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군인들이 긴 kaftan보다 짧은 kaftan을 입고 말을 타며 전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생활의 필요에 따라 더욱 간편한 양식이 선호되고 있으나 kaftan의 기본형은 큰 변화가 없다고 본다.

4. Vest形 kaftan

vest形의 kaftan은 긴 kaftan위에 착용하였는데, 권위나 부를 과시하지 않는 서민층과 젊은 층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몽골복식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도 젊은 男子들이 간편한 차림 위에 vest형의 조끼를 입었다. 이와 같이 vest形의 kaftan은 젊은 사람들이 간편한 차림과 장식적인 목적으로 착용하였다(圖 13).



(圖 13) Mongol의 vest
(Mongol costume, p.75)

5. 오늘날의 복식에서 kaftan의 영향

kaftan 착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각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文化的 감각과 衣服의 실용성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kaftan이 동서양 각 지역에서 복식 기본형의 출현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의 발견이 바로 본 논문이 추적하고자 한 목적이며 결과인 것이다. 이는 각 민족이 전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유한 문화감각과 고유 의복의 실용성, kaftan이 그들에게 미친 문화유산 및 실용성과 맞물린 결과라고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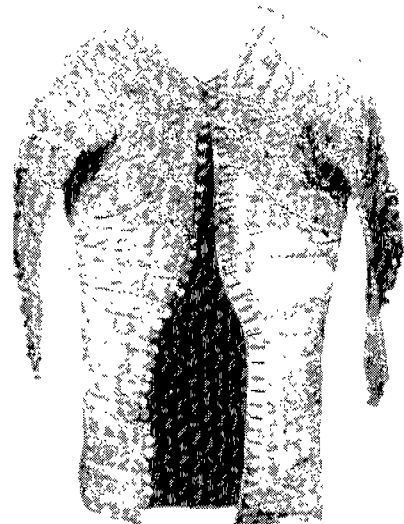
그러면 여기서 kaftan이 서양복식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므로써, 상기의 논거를 증명하고자 한다.

우선 kaftan과 서양복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kaftan이 서양에 전래된 시기는 십자군 전쟁(1095

~1272)기간 동안이다. 이 전쟁은 11세기말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교도들로부터 聖地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으킨 전쟁으로, 해가 바뀌면서 여러 차례 계속 원정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 1272년에 끝이 났다. 이 십자군 원정으로 당시의 사회는 많은 정신적 물질적 변화를 초래했다.

그 한 예로 복식에 있어서 kaftan양식이 전래되었고, 새로운 직물과 향료가 서양에 보급되었다. 또한 경제 사회면에서는 십자군을 따라 동양에 갔던 상인들에 의해 무역이 성행하면서 부르조아계급의 탄생과 금융업의 발달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십자군 전쟁이 중세 유럽의 복식에 끼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십자군 전쟁은 결과적으로 東方의 수준 높은 이슬람文化의 수입과 함께 아름다운 絹織物 및 綿織物과 진보된 직조기술의 수입에 일조를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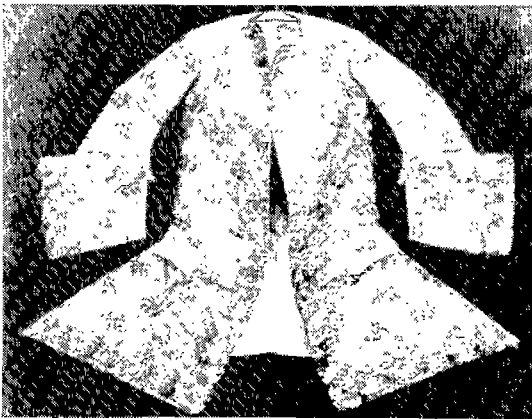
중세 유럽복식에서도 kaftan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의상에 있어서 몇 가지 실례를 들 수 있다. 우선 꼬따르디(cotehardie)와 뿌르뿌엥(pourpoint)에서 터키의 앞트임 衣服, 즉 kaftan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인 앞을 여미는 기능과 장식의 기능으로



(圖 14) 1364년대 pourpoint
(F. Boucher, Historie du Costume, p.17)



(圖 15) 1710년대 東洋風の 남자복
(F. Boucher, *Historie du Costume*, p.328)



(圖 16) 1760년대 Jacket
(F. Boucher, *Historie du Costume*, p.315)

이 의상에 단추가 많이 사용된 점을 들 수 있다(圖 14~16).

이것은 kaftan양식이 단순히 애용되었다는 기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시대사 및 문화사적 배경은 물론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실용성, 심미성, 계층성에 바탕을 둔 基本 樣式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장점에 裨 困한다. 다시 첨언하자면, kaftan

의 기본양식 성립이후, 시대·민족·지역·계층·문화 및 종교적 배경에 따라 각기 독특한 모습으로 변형되는 가운데 세계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바로 인류의 服飾生活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VIII. 結 論

古代 아시아 遊牧騎馬民族의 후예들이 kaftan을 착용하는 지역을 구분하면 西아시아, 中央아시아, 東아시아로 볼 수 있다.

아시아의 kaftan 樣式에 관하여 출현의 歷史的背景, 時代에 따른 變形, 地域別 分布 등으로 細分 化하여 분석한 결과 kaftan은 自然環境과 社會構造와 文化條件에 따라 土着化를 이루면서 원형의 뛰어난 存續性을 지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이 결과를 自然環境, 社會構造, 文化條件이라는 영역에서 kaftan의 역할과 접목을 종합적으로 고찰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自然環境과 kaftan의 상관성이다. kaftan은 그 광활한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自然環境과 生活樣式에 밀접하게 적용된 古代 服飾 중의 하나이다. kaftan의 기본양식이 Silk Road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가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각양각색의 민족성과 相異한 생활양식에서도 土着化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기로 한다. 우선 kaftan 樣式에서 특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앞트임(前開形)”에 있다. 이 “앞트임”樣式의 장점은 추위와 더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스텝과 오아시스 지역의 자연조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衣服의 편리성이 이미 古代 遊牧民에 의해 개발됐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소매통이 좁고 길이가 둔부선까지 오는 樣式은 遊牧民 生活樣式의 특징이라는 이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간편성과 편리성이 강조된 점이다. 이점은 그후

Silk Road를 오가는 대상들, 특히 소그드인들이 왜 kaftan을 즐겨 착용했는지를 고려해 볼 때,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그드인들을 나타낸 조각품에서 보면 그들의 간편한 kaftan은 민첩한 기동성과 연관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 당시 kaftan의 천이 모직과 펠트직이었으므로 이것이 기온변화에 대처하는데 일조를 했음을 짐언한다.

둘째, 사회구조와 kaftan의 상관성이다. Silk Road가 발달하고 交易이 활발해지면서 상권과 권력장악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길을 따라 나타난 많은 부족국가들의 흥망성쇠 과정에서 遊牧民들은 점차 定着하여 성곽도시를 구축하고 강력한 군주체제를 탄생시켰다. 그 결과 政治 經濟의 構造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社會階級에 변화가 발생한 것은 자명한 현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착문화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직물의 다양화를 초래하였다. 그 중 특히 silk의 유입 및 주요 상품으로서의 부상은 kaftan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즉 kaftan의 재료 및 형태 더 나아가 수요자 층에 까지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Silk Road 주변의 壁畫와 페르시아의 細密畫를 통해서 보면 kaftan의 材料와 形態에 현저한 변화가 시도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kaftan의 재질이 모직뿐만 아니라 silk도 가능해지면서 이를 착용하는 社會階級이 遊牧民이나 대장뿐만 아니라 권력자나 상류층에 까지 확대되어 kaftan이 신분의 상징성을 강조하는데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는 silk로 된 kaftan을 착용하고 말을 타거나 먼 길을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상의 상품으로서 silk제품의 가치성과 함께 상업문물의 발달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에 기인한다. 또한 형태면에서 소매통과 품이 풍성하게 넓어지고 길이가 훨씬 길어져 과거의 둔부선에서 발목선까지 내려왔다. 특히 술탄들이 입었던 kaftan은 권위와 위엄의 상징으로써 그 역할을 도맡았던 것이다. 博物館에 소장된 터키 술탄들의 kaftan은 재질과 양식에서뿐만 아니라 수량에서도 부를 과시하는데 이용됐다. 왜냐하면 kaf-

tan을 그들은 여러 겹 겹쳐 입었기 때문이다. 사회 계급의 상징으로써 kaftan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국가 외교상 kaftan은 매우 중요한 공물 품목이었음은 당시 사회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데에 시사하는바 크다.

셋째, 文化條件과 kaftan의 상관성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文化 文明의 交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Silk Road는 대상들을 매체로 하여 많은 종교들이 전파되는 통로이기도 하였다. 종교 예식 때에 입었던 제관들의 의상은 kaftan의 양식을 기본 틀로 하여, 신성함을 상징하는 흰색과 화려한 색상과 주름과 금, 은사 직물을 이용하여 신성성과 권위적인 각 종교의 특징을 담고 있었다.

이와 같이 kaftan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遊牧民族과 Silk Road를 통하여 각 지역이나 민족들 사이에서 kaftan 특유의 기본형식은 유지하면서 그들의 자연과 생활여건에 적응시켜 양식적 변화를 가져오면서 土着化하였음을 고찰하였다. 이 土着化가 꾸준히 이어져 온 이유는 단순성과 편리성이라는 kaftan 기본형의 특징에 있었다.

참고문헌

- 고복남, 「韓國衣服의 類型과 樣式」, 서울: 集文堂, 1987.
- 國立中央博物館所藏, 「中央아시아 美術」, 서울: 三和出版社, 1986.
- 金定欸, 「中東史」,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2.
- 김정위, 「이슬람문화사」, 서울: 탐구당, 1989.
- 李熙秀, 「터키사」, 서울: 大韓教科書 株式會社, 1993.
- 任明美, 「蒙古服飾」, 서울: 경춘사, 1992.
- 최한우, 「중앙아시아」, 서울: 퍼내기, 1992.
- 황춘섭, 大世界の 歷史(4), (6), (10), 서울: 三省出版社, 1982.
- 정양모, 이영현, 「이스라엘의 성지」, 서울: 생

- 활성서사, 1988.
- 나가사와 가즈도시, 이재성(譯),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서울 : 민족사, 1990.
 - 룩관덴, 宋基中(譯), 「유목민족제국사」, 서울 : 민음사, 1993.
 - 마리오 부싸글리, 권영필(譯), 「중아시아회화」, 서울 : 一志社, 1979.
 - 長澤和俊·関丙勳(譯), 「東西文化의 交流」, 서울 : 民族文化社, 1991.
 - 존 브라이트, 김운주(譯), 「이스라엘의 歷史 上下」, 왜관 : 분도출판사, 1978.
 - 하자노프, 金浩東(譯), 「遊牧社會의 構造」, 서울 : 지식산업사, 1990.
 - E. 까베낙, 서인석(譯), 「성서의 역사적 배경」, 서울 : 성바오로출판사, 1981.
 - D. 클라인즈, 성엽(譯), 「성서지도」, 서울 : 성바오로출판사, 1989.
 - 岡崎敬, 「東西交渉의 考古學」, 東京 : 平凡社, 1980.
 -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攻(古代編)」, 東京 : 文化出版局, 1984.
 -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攻(中世編)」, 東京 : 文化出版局, 1984.
 - 杉本正年, 井上泰男, 松本敏子, 「東西의 服裝史」, 東京 : 衣生活研究會, 1985.
 - _____, 「服裝大百科事典(上)」, 東京 : 文化出版局, 1969.
 - 平凡社, アシア歷史事典, 東京 : 平凡社, 1982.
 - п.и. АпьъАу, 「古代SAMARKAND의 壁畫」, УБО-шшСb АФРАи-ъА, 1975.
 - V.I. 사리아니치, 加藤九祚(譯), 「シルクロード의 黄金遺寶」, 東京 : 岩波書店, 1988.
 - 임오수, 「摩尼敎皮其東漸」, 中華書局出版, 1987.
 - 周蓀蓀, 「西域摩尼敎文明」, 新疆文物1. 第二十四, 1992.
 - Abed Al-Samih abu Omar, 「Traditional Palestinian Embroidery and Jewelry」, Jerusalem : Al-Shark, 1987.
 - Alfred Rubens, 「History of JEWISH CUSTOME」, Jerusalem : Peter Owen Limited, 1973.
 - Alev Lytle Croutier, Harems, Paris : Belfond, 1989.
 - Andre Grabar, 「Byzantine painting」, Geneva : Skira, 1979.
 - A. Pignol, 「Costume et Parure dans le Mande Arabe」, Paris : Edifra, 1987.
 - Armand Abel, 「Le Monde Arabe et Musulman」, Eeddens, 1968.
 - Bruxelles Linden-Museum, 「Art des Steppes et des Oasis」, 1984.
 - Basie Gray, 「Persian Painting」, Geneva : Skira, 1977.
 - Cécile Beurdeley, 「Sur les Routes de la Soie」, Paris : Seuil, 1985.
 - David Talbot Rice, 「Islamic Art」, London : Thames and Hudson, 1989.
 - Dheilly. J., 「Dictionnaire Biblique」, Belgium : Desclee, 1964.
 - Dr. Clinton Bailey, 「The BEDOUIN」, London : British Museum, 1990.
 - Edgar Hanlotte, 「SYMBOLIQUE du VÊTEMENT」, Paris : Aubier, 1963.
 - E. M. Laperrouzaz, 「ARCHEOLOGIE ART et HISTOIRE de la PALESTINE」, Paris : Cerf, 1988.
 - Etienne Charpentier, 「Pour lire L'Ancien Testament」, Paris : Cerf, 1980.
 - E. Royston Pike, 「Dictionnaire des Religion」, P.U.F, 1954.
 - Francois Boucher, 「Histoire du Costume en Occident de l'Antiquit nos jours」, Paris : Flammarion, 1965.
 - H. H. Rowley, 「ATLAS DE LA BIBLE」, Paris : Centurion, 1969.

- Heather Colyer Ross, 「L'art du Costume de l'Arabie」, Suiss : Arabesque, 1975.
- Henny Harald Hansen, 「Mongol Costumes」, Kobenhavn, 1950.
- Ira M. Lapidus, 「A History of Islamic Socie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J. A. Thompson, 「VIE et COUTUMES」, Paris : Inter Varsity, 1986.
- Jean-Pierre Alen, 「Le PROCHE-ORIENT Arabe」, que sais-je?, 1982.
- Jennifer Scarce, 「Women's Costume of the Near and Middle East」, London : Unwin Hyman, 1987.
- J. M. Rogers, H Iye Tezcan, Selma Delibas, 「The Topkapi Saray Museum」, London : Thams and Hudson, 1986.
- J. M. Rogers, 「Islamic Art and Design」, Lomdon : British Museum, 1983.
- Karen Segar, 「PORTRAIT of a PALESTINIAN VILLAGE」, London : Third World Center, 1981.
- Leiden E. J. Brill, 「Encyclopedie de l'Islam (Tom V)」, Bruxelles, 1986.
- Leon-Dufour Xavier, 「VOCABULAIRE DE TEOLOGIE BIBLIQUE」, Paris : Cerf, 1970.
- Lynne Thornton, 「La femme dans la peinture Orientalists」, Acr Edition, 1989.
- _____, 「Minatures Illuminations of Amir Hosrov Dehlevi Works」, Publishers of the Uzbek, USSR, 1983.
- Marion Sichel, 「U.S.S.R, National Costume Reference」, London : Batsford, 1986.
- Nevber Gürsu, 「The Art of Turkish Weaving」, Istanbul : William A. Edmands, 1988.
- Nina Biriukova, 「Decorative Arts in the HERMITAGE」, Leningrad : Aurora Art Publishers, 1986.
- Philippa scott, 「The Book of Silk」, London : Thames and Hudson, 1993.
- Rober Fossier, 「The Middle 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Robert Mantron, 「Historie de la Turque」, Collection Que sais-je N 539. Pressed Universitaires de France, 1982.
- Roderic H. Davison, 「Turky a Short History」, Eethen, 1981.
- _____, S. Amiry and V. Tamari, 「THE PALESTINIAN VILLAGE HOME」, London : British Museum, 1989.
- Shelagh Weis, 「PALESTINIAN COSTUME」, British Museum, 1989.
- _____, T. C. Mitchell, 「BIBLE in the British Museum」, London : British Museum, 1988.
- _____, 「T. O. B. Ancien Testament」, Paris : Cerf, 1977.
- Widad K. Kawar, 「MEMORE de SOIE」, Paris : Edifra, 1988.
- Wiebk Walther, 「Woman in Islam」, London : Abner Schram, 1981.
- W.F. Albright, 「The Archaeology of Palestine」, Liban Beirut, 1977.
- Yedida, K. Stillman, 「PALESTINIAN COSTUME and JEWELRY」, Albuquerque, 1979.
- 김용문, “아시아의 修髮樣式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민병훈, “中央아시아—宗教傳播의 諸樣相”, 韓國服飾, 제12호, 1994.
- 박춘순, “마지考—마지 形態의 地域的 特性과 變遷過程에 관하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오춘자, “성서를 배경으로 한 Hebru 복장의 상징적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 _____, “中央아시아 服飾研究 I”, 충남생활과 학연구지 제3권, 1990.
- _____, “近東地域의 服飾研究(I) - 聖書에서 의 服飾의 象徴性과 古代近東地域의 服飾研究 -”, 韓國服飾學會誌, 제 12호, 1992.
- _____, “近東地域服飾研究(II) - 오스만터키 복식을 中心으로 -”, 服飾文化研究會誌 제2권, 제 1호, 1994.
- 윤양노, “古代毛織物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週刊 朝日百科, 世界の美術, イスラム美術, No. 81, 東京: 朝日新聞社, 1979.
- 加藤定子, 特輯 “シジレクーロドの服裝文化” 服裝文化, No. 150, 東京: 文化出版局, 1976, 3.
- _____, “タジクの 民族服 一~六,” 服裝文化, No. 155~160, 東京: 文化出版局, 1977~1978.
- Jennifer Scarce, 「Principles of Ottoman Turkish Costume」, Journal of the Costume Society.
- National Geographic, vol. 177, No. 3, March, 1990.
- Notre Historie, 「Islam」, N°44, Avrie, Paris, 1988.
- Reuben Levy, 「Notes on Costume from Arabie Sources」, from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April, 1935.

ABSTRACT

A Study on the Kaftan Style in Asia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kaftan styles in Asia.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origin of the kaftan concentrating on the history and cultural backgrounds of nomads in the Western, Central and North Eastern Asia. Secondly, for more thorough study and expla-

nation on how these kaftans contributed to East-West trade along the silk road, wall paintings and miniature illuminations along Oasis roads, Persia and Saracen period were compared. Also real kaftan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Western (Turkey, Palestine), Central(Kazakistan, Uzbekistan, Tadzhistan, Qyrgyztan, Turkmenistan) and the North Eastern Asian(Mongol) area. Thirdly, an attempt has been made to provide the style classifications according to their peculiarities of the various kaftans as well as how kaftan gave important influences on costumes of different religious sects.

The kaftan is a long, coat-like garment with front openings, fastened with long sash, having an extra long sleeves which were worn by middle and high class nomadics throughout the West, Central and North Eastern Asia. This type of kaftans were a basic clothing for nomadics since they were constantly moving from one to another areas on their horse back riding. They also wore tight trousers with boots.

Kaftans seem to be originated from nomads of Steppe around B. C. 800. On B. C. 400 west asian areas such as Solokha, Kul-oba, Kulogan had pictures, sculptures on vases showing kaftans of half coat type length with front opening tied with band. Also the materials used were the products of animals such as wool or felt with animal designs showing Scythian nomads.

In the North Eastern Asia, Hsiung-Nu were active in Kazakhs, North of Altai and Mongol. The clothing and fabrics excavated near Noin-ula, Pazyryk showed many samples of

kaftan with trousers with other interment belongings with a corpse around B. C 300 to A. D 100 when trades along the silk roads were proven by many historians. Kaftans excavated in this area wore red, front opening silk materials which suggesting settling down of nomads.

In the central Asia, Dol-gull near Altai mountain area, were mainly miners who later had many trades with Persia and Bizantine.

After Dol-gull, Bezeklik temple, Samarkant, Kizil cow Buddha sculture, wall paintings of Astana tomb showed typical kaftan of this region. These were both hip covered length as well as long coat with narrow sleeves. Especially they had different color band from the main kaftan with gorgeously and splendidly designed silk.

In Perusia during A. D. 1400 to 1600, miniature illuminations showed kaftan as a high class symbol more than clothing purpose.

They had best quality silk with extra long sleeves draping and had a layers of kaftans one on top of another as a symbol of wealth. These Kaftans with different colors and designs were even more beautiful with their effective combinations and contrast of colors. On the other hand the lower class common people and servants wore simple kaftan with the front part of the kaftan were slipped into the belt in order to be more active and convenient to work.

The real kaftans discovered at Topkapi Saray Palace of Turkey from A. D. 1300 to 1900 were also compared. These kaftans were very numerous in numbers as well as designs. The materials and designs used were also vari-

ous such as Chinese to Italian silk.

The shape and pattern itself were not much different from the previous nomad's Kaftans.

The Palestian kaftans remained were from the beginning of 19th and 20th century. Since this area is hot and dry desert, they used black and navy blue colors mostly in order to exclude the sun lights. The patterns used were similar to Nomads and Bedouin with cross stiches and patch work decorations.

In the central Asia they had similar life style and natural environmental conditions with Turkish tribe which resulted in similar kaftan styles as nomads.

Mongols conserved basic patterns of kaftan since Cinggis Khan with deep folding in order to keep warm.

At last the kaftans studied in this thesis were classified in to four such as half coat, long coat, jacket and vest style. A pattern used in the Central Asia were zigzag and animal design whereas in the West Asia were floral, plant, arabesk and circle pattern.

As I discussed previously, kaftan styles of nomads in the Asia maintained its basic pattern throughout the history except slight changes in color, gusset, sleeve shapes. These slight changes were made according to the need to adapt the need of environmental, natural conditions. The reason for aboriginality of kaftan in Asia was its simplicity and convenience. Most interesting fact is that for all these years, Mongols are still wearing kaftan in their life ensuring us that they are the preserves of old kaftan.

Since this thesis dealt enormous Asian regions, I had a limitation of not being able to

cover the Far Eastern asian areas such as Korea, China and Japan how these kaftans were influenced in their clothing history, as well as Eastern and Western culture.

This topic along with the studies on materials and designs of patterns of kaftan will be another research project in the future.